

2025년 전국 저작권 등록 총량 1,067만여건

3월 17일 국가판권국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저작권 등록 총량은 1,067만 7,043건으로 전년 대비 0.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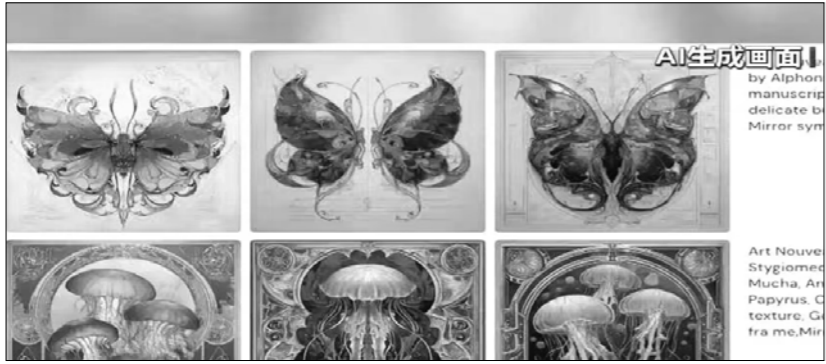
등록 현황을 보면 2025년 전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는 318만 2,829건으로 전년 대비 12.58% 증가, 전체적으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등록지역은 주로 동부지역에 집중되었는데 해당 지역의 등록량은 약 182만건으로 전체 등록량의 57%를 차지했다.

2025년 전국 작품 저작권 등록량

은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했다. 등록량이 많은 지역은 북경, 복건, 산둥, 귀주 순이다. 2024년과 비교할 때 로녕성의 작품 저작권 등록량 증가율은 100%를 넘었고 천진, 산시, 하남, 광서, 해남, 녕하, 신강의 작품 저작권 등록량 증가율은 50%를 초과했다. 작품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술작품 등록량이 가장 많아 전체 등록량의 63.60%를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사진작품, 문자작품, 영상작품 등 순이었다.

/ 길림일보

같은 '제시어'로 생성된 AI 작품 저작권 침해?



몇가지 제시어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당신의 지시에 따라 정교한 그림을 그려준다. 이러한 작업은 이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적이 있는가?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의 '지시'를 그대로 복사하여 동일한 스타일의 그림을 생성한다면 이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라릴 뿐으로 '사상'의 범주에 속하므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AI 제시어는 과연 '작품'으로 간주될까? 법원의 심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용적으로 볼 때 해당 제시어는 단지 추상적인 창작 아이디어와 지시 사항의 집합을 나타낼 뿐으로 핵심은 화면 요소, 예술 스타일, 표현형식 등의 라렐과 설명에 불과하다.

최근, 상해시황포구인민법원은 AI 제시어 저작권 사건을 심리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어에 대해 저작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원고 회사의 모든 소송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해당 그림들은 상해의 한 문화회사가 인공지능 대형 모델을 리용해 생성한 것이다. 그들은 예술 스타일, 주요 요소, 재질 디테일 등을 포함한 여러 제시어를 입력하여 그림을 생성한 후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했다.

형식적으로 볼 때 해당 제시어는 단순히 다양한 요소들의 간단한 라렐에 불과하다.

독창성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해당 제시어가 선택한 예술 스타일, 재질 디테일 등은 모두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에 속하며 저자의 독특한 미적 시각이나 예술적 판단을 드러내지 않는다.

원고 회사는 해당 제시어는 자신들의 지적 창작 성과이며 창작 의도와 미적 선택을 담고 있어 법적 의미의 '작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피고가 원고의 허가 없이 해당 제시어를 사용하여 그림을 생성하고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해당 문자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간단한 키워드 조합을 작품으로 인정한다면 언어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고 AI 혁신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여 저작권법의 '창작을 장려하고 사회문화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립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법원은 원고는 제시어에 대해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해시황포구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원고 회사의 모든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피고 주모와 성모는 제시어는 '작품'에 속하지 않으며 제시어 작성 행위도 창작 행위가 아니라면서 해당 제시어는 단순히 단어들의

3월 9일, 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차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초과근무시간에 3분간 눈 감았다고 해고한' 사건을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 사건은 아래와 같다.

2021년 3월, 여모모는 품모의 회사에 입사하여 해당 회사의 한 공장 매장 관리를 맡았다. 2024년 9월 26일, 품모 회사의 지역 관리자가 위켓을 통해 여모모에게 그의 직원 번호가 당일 폐기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량측 모두 로동계약이 당일 해지된 것에 동의했다.

회사는 여모모가 근무시간 동안 매장에 고객이 있는 상황에서 계산대 의자에 앉아 잠을 자다가 소핑물 직원에게 신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가 관리하는 매장은 영업시간중에 문을 닫은 적이 있어 소핑물 규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회사

연길 시민, '노벨상 신약'에 4,000원 사기당해

최근, 연길 시민 최씨는 판매업체에서 진행한 '수업 듣고 무료로 답알 받기' 행사에 참여했다가 현장 '강사'의 소개를 믿고 4,000원을 주고 '노벨상 신약' (诺贝尔奖神药)으로 알려진 제품 7박스를 구매했다. 이후 가족이 구매한 제품에 의문을 품고 권리를 주장하려 했으나 판매업체의 거부로 당했다.

'3.15' 국제소비자권익일을 맞아 최씨는 현장을 찾아 연길시소비자협회 사업일군에게 신고했다.



현장에서 연길시소비자협회 사업일군의 도움을 받고 있는 최씨

'노벨상 신약', 알고보니 고체 음료

"정말 병에 걸리면 몸도 괴롭고 돈도 많이 들 텐데 이 약을 사서 미리 예방하는 게 낫겠다."

지난 2월 중순, 친구의 권유로 최씨는 연길시 한 판매업체의 '수업 듣고 무료로 답알 받기'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장에서 스스로를 북경에서 왔다고 소개한 '강사'는 로인들에게 이른바 '노벨상'을 받았다는 '신약'을 열심히 추천했다. '강사'에 따르면 이 약은 혈관 '쓰레기' 제거, 뇌경색 및 심근경색 예방은 물론 어지럼증 개선, 수면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평소부터 건강에 신경 써온 최씨인지라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동해 당장에서 4,000원을 주고 약 7박스를 샀다.

가족에 대한 배려로 최씨는 그중 한 박스를 건강이 좋지 않은 매제에게 선물했다. 그러나 매제가 약을 받고 의심이 들어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약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신약이 병을 고친다'고 믿은 최씨는 이미 한병을 개봉해 여러 날 복용한 상태였다. 매제가 이 사실을 알려주자 최씨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판매업체를 찾아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로색포장 무식별 표시, 소비자 현장서 도움 요청

'3.15' 국제소비자권익일 상담 써

비스 행사장에서 최씨는 남은 6박스의 약을 가지고 상담 부스로 찾아왔다. 현장에서 본 이 '약'은 로색포장이었고 박스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디자인되어있었으며 유일하게 중국어로 된 설명 부분에만 이 제품은 'ATIP 복합분말 고체 음료'이고 원산지는 미국이라고 명시되어있었다. 박스에는 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 표시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연길시소비자협회 사업일군은 현장에서 이 신고를 접수, "로인을 상대로 한 이러한 소비자 함정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사업일군은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로인들은 일반적으로 약물에 의존하는데 일부 불량 판매업체들은 바로 로인 소비

자들의 이런 '약점'을 파고든다."고 지적했다. 사업일군은 또한 "수입 제품이라면 반드시 정규적인 수입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제품은 박스에 고체 음료라고만 표기되어있고 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 표시가 없어 판매업체가 설명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설명된 효과가 없다면 과장 광고나 심지어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

리성적으로 소비하고 함정 각별히 조심해야

현재 연길시소비자협회는 해당 신고를 접수했으며 사업일군은 제품을 확인 조사한 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협회 사업일군은 각종 '건강 강좌', '무료 체험', '전문가 진료' 등의 활동에 대해 경계를 낮추지 말고 판매업체의 과장 광고를 쉽게 믿지 말 것을 로인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건강보조식품이나 약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에 정규 승인 번호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리성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소비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유사한 상황을 겪는다면 시장감독관리부문이나 소비자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 북방법치보

새벽에 요행심리로 음주운전, 결국 후회막급

각한 그는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 요행심리로 차에 시동을 걸고 귀가 길에 올랐다.

그러나 G333선 42키로미터 지점까지 운전해 갔을 때 그는 룡정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 향진집행중대가 설치한 야간 음주운전 단속 거점과 마주쳤다. 불시에 나타난 경찰에 장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 범에 따라 음주측정기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72mg/100ml로 음주운전 위법행위로 확인되었다.

장씨는 "새벽 시간이면 경찰도 퇴근했을 거라 생각했기에 이 같은 무모한 행동을 저질렀다."며 깊이 후회했다. 그는 경찰이 이른새벽까지 자리를 지키며 단속을 펼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은 장씨에게 운전면허 6개월 정지, 벌점 12점, 벌금 2,000원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룡정 교통경찰은 모든 운전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시했다. 음주

운전 단속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도 없고 이른바 '사각지대'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간 교통관리부문은 '전 구역 적용, 무관용 원칙, 엄격한 집행'이라는 방침 아래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만취운전 등 중대한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장씨의 요행심리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연변뉴스넷

초과근무시간에 잠깐 눈 감았다고 해고했다가 ...

사가 해당 장소를 계속 임대할 수 없게 되어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에 로동계약 해지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모모측은 2024년 9월 어느 날 소핑물 직원에게 신고를 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날은 오전 9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근무했으며 당일 매장의 모든 업무를 혼자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밤 8시경, 이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상태에서 생리적 피로가 왔고 일이 너무 힘들어 잠시 의자에 앉아 쉬었을 뿐 실제로 잠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품모 회사도 자신이 고객을 응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고객이 들어왔을 때는 응대했고 너무 피곤해서 잠시 앉아 3분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2024년 8월 어느 날 매장 문을 닫은 사건에 대해서는 당일 매장에

직원인 한명뿐이어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동안 잠시 문을 닫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광주시남사구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1심 판결을 내렸다. 품모 회사는 여모모에게 임금 차액 217.2원, 주택보조금 3,000원, 불법 로동계약 해지 배상금 4만 9,572원 24점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의 모든 소송 요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여모모가 연속으로 정상적인 근무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고 회사가 교대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피로할 때 눈을 감고 휴식한 것은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증거로는 그가 잠 시간 잠을 잤거나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8월 어느 날 매장 문을 닫은 것은 화장실을 가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여모모는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품모 회사는 해당 비디오 영상을 제출했지만 2초 길이의 이 영상은 여모모가 머리에 손을 얹은 채 눈을 감고 벽판에 기대어있는 모습만 보여줄 뿐 그가 장시간 수면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력부족이며 매장의 정상적인 판매 업무에 영향을 미쳤거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다.

법원은 여모모의 행동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며 회사 또한 그의 행동이 규정에 명시된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계약 해지는 사실적 및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불법 해지에 해당된다.

법원은 휴식권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로서 기업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해야 하며 더우기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사법부

富 民 文 明 和 谐 自 由 正 治 公 平 法 治 爱 敬 诚 友 强 主 明 谐 由 等 治 国 业 信 善

中华圆梦 万马奔腾

河北蔚县 焦新德作

中宣部宣教室 中国文明网